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및 정서적자활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엄 태 영 (Um, Tae-young)*
(E-mail : bokjisa@kiu.ac.kr)

논문접수일 : 2012년 6월 11일
논문심사일 : 2012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8월 17일

* 학위취득대학 : 연세대학교
현직: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및 정서적자활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적 자활간의 관계에서 정서적자활의 매개효과 검증과 정서적자활, 실무자 및 동료대상 만족정도의 경제적 자활에 대한 영향효과 확인을 통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08년 12월 서울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2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동료관계와 실무자관계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적자활 정도가 함께 증가하였고, 정서적자활 정도는 동료 및 실무자관계와 경제적 자활간의 완전 매개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은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자활사업 내에 공동체 정신을 개발해야 하며, 심리적 방법을 통해 자활사업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자활 향상을 위해 정서적자활에 대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 보다 상세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주제어] 자활, 지역자활센터, 장애통합교육보조원, 매개효과

*본 연구는 201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대폭 수정한 것임
본 연구는 2010년도 경일대학교 신입교원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본 논문의 편집을 위하여 논문의 제목을 이하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사업"이라 칭한다

I. 서론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 근로가 가능한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기능습득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근로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는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수행중이며, 2012년 현재 242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 성과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이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자¹⁾ 자활사업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책임의 전면에 지역자활센터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의 결과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한 경험이 있고 여성이면서 고령, 그리고 저학력과 같이 낮은 인적자본보유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렵다는 점, 근로인센티브 부족과 보충급여방식이라는 제도상의 문제, 마지막으로 장기간 교육과 훈련보다는 단시간 내에 수급과 자활사업 탈피에 도달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목표설정에서 시작된 것이다(엄태영 2010). 특히 전 세계에 닥친 경기불황의 상황이 가해지면서 자활사업 성과도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2012년 자활사업 지침 개정안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출기준과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의 설치기준 등을 변경하였으며 무료간병서비스를 대표로 하는 사회서비스관련 자활사업의 유료화를 추진하는 등 자활사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²⁾. 특히 사업단별 매출금액을 자활근로사업단 지속기준으로 적

1) 물론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나 상승폭이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자활성공률은 14%, 탈수급률은 6.3%였으나 2011년 자활성공률은 21.8%, 탈수급률은 10%에 이른다(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2년 종합 자활지원계획).

용함에 따라 자활사업을 수급자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숙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자활 현장입장과는 다소 상충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해 온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가 과연 실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측면의 자활성으로 이어졌는지를 실증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별·집단상담, 그리고 자활사업단 운영의 기초가 되는 참여자간의 긍정적 관계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실무 담당자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자활사업단 내의 동료관계는 결국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 서비스의 1차적 효과로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을 들 수 있고, 이는 경제적 측면의 자활로 이어지기 위한 전단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정원오·김진구 2005)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실무자 지원에 대한 만족과 동료관계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활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개모형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매개모형연구는 지역자활센터의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가 우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자활사업 탈피나 수급탈피 등의 경제적 측면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활 영향요인들이 정서적 자활 향상을 거쳐 경제적 자활로까지 연결되는지를 검증하는 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라 하겠다.

하지만 기존 자활관련 선행 연구들은 자활사업의 궁극적 성과인 경제적 측면의 자활을 강조(권승 2005; 이상은·김세진 2007)하거나 정

2)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의 2012년 하반기 자활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을 참고할 수 있겠다.

서적 자활만을 결과변수로 다룸(정원오·김진구 2005; 엄태영·김동기의 2008; 원상숙 2007; 손능수 2005)으로써 본 연구의 방향처럼 이 두 변수간의 관계를 함께 연구한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각각의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조차도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학력이나 연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등의 특성을 설정함으로써 실제 자활사업 현장에 도움을 주는 함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양적 중심의 경제적 자활개념과 심리·태도적 측면의 정서적 자활을 연구모형 내에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와 동료 간 관계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식한 실무자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 지지정도는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측면의 자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정서적 자활은 실무자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동료지지와 경제적 측면의 자활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자활의 개념

본 연구는 빈곤계층의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 등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활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활을 어떻게 개념 규정 하는 지에 따라 자활사업이 성공하였는지, 그리고 자활성가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활의 어원적 의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자활의 성과는 “스스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행하는 노력 또는 시도의 결과물”로 이해된다(박정호 2010). 하지만 실제 자활사업

현장에서의 자활에 대한 개념은 이들의 실제 자립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제적 자활 측면과 심리적 측면의 정서적 자활 측면이 함께 고려되는 분위기이다(김인숙 2008).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본 연구에서도 자활의 개념을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로 규정할 것이며 구체적인 개념의 내용 및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자활의 개념

빈곤계층의 경제적 자립 측면을 고려한 경제적 자활의 개념은 대체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진다. 먼저 적극적 의미의 경제적 자활 개념은 외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로서(Hawkins 2002),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공공부조와 같은 국가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박경숙·박능후 2001). 이러한 적극적 의미의 경제적 자활 개념을 현재 한국적 상황에 적용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양한 급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수급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서 소득상승에 따른 수급탈피여부(권승 2005)나 탈수급률(보건복지부 2012) 등의 기준을 자활사업의 궁극적 성과로 적용한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소극적 의미의 경제적 자활은 국가지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획득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Freeman 1997).

이 두 가지 의미의 경제적 자활 개념은 빈곤계층이 근로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공공부조를 포함한 외부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즉 적극적 의미의 경제적 자활은 외부지원 없이 반드시 자립(自立)해야 하지만, 소극적 의미는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의 외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엄태영 2010). 따라서 소극적 의미의 경제적 자활개념을 현재 한국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근로활동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활사업을 중단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며, 반드시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현재의 자활사업 목표라 할 수 있는 탈 수급률보다는 자활성공률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활성공률 정의하는 과정 중에서 경제적 자활 개념 중 소극적 의미를 적용하였고,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을 벗어나서 본 자활근로사업이 목표로 설정한 각 급 학교의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취업³⁾하거나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한 경우를 자활성공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본 연구가 정의한 자활성공은 소극적 의미의 경제적 자활개념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수급자 탈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자활사업의 제도적 한계를 볼 수 있는 보충급여방식이나 부족한 근로인센티브제도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내에 머무르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자활사업을 탈피한 경우는 매우 큰 성과로 봐야한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자활사업 탈피를 설명하는 자활성공률은 탈수급률과 함께 중요한 자활사업의 성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소극적 의미의 경제적 자활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2) 정서적 자활의 개념

그동안 자활사업은 수급자 탈피나 취업 등 경제적 측면의 자활개념을 자활의식과 같은 정서적 측면의 자활개념보다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권승 2005; 임태영·김동기 외 2008). 왜냐하면 자활사업은 공동창업형태인 자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취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피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로부터 일정수준의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을 받는 자활근로사업에서부터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승이 자활사업의 중요한 목표였으므로, 경제적 자활개념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자활의 어

3)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사업의 유형 중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이다.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채용되어 자활사업을 탈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자활 개념이 자연스럽게 자활 전체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신명호 2006).

하지만 자활사업 내부에 경제적 측면의 자활개념만을 강조해온 그간의 과정에 많은 비판적 목소리가 나타났다(노대명 2007; 김인숙 2008). 비록 경제적 측면의 자활개념이 소득과 같은 계량적 수치에 기반을 둬으로써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박정호 2010),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경제적 측면의 자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상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정서적 자활의 개념이 강조되기에 이른다(이형하·조원탁 2004). 미국의 경우에도 근로연계 복지프로그램 관련 초기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이나 직장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의 탈 수급 영향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복지개혁 이후에는 이들의 정신건강이 수급탈피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Dooley and Prause, 2002; Schmidt and Dohan et. al. 2002).

대체로 정서적 자활은 자신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 적응정도(이형하·조원탁 2004),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립관련 의지(박경숙·박능후 2001), 인간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강화된 상태(Philip and Vamadu et. al. 2009),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지(강남식·신은주 외 2002), 안정된 삶에 도달하는 사회적 능력(김승의 2007), 그리고 자립관련 능력을 얻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임태영·김동기 외 2008)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활에 대해 자활사업을 탈피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자립의지 및 이를 위한 다양한 자립요소를 얻음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확신으로 규정하였다.

2. 자활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1) 실무자지원과 정서적·경제적 자활간의 관계

자활사업의 실제 수행과정은 지역자활센터 등의 민간기관에서 자활사업단 담당 실무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히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사업운영과 관련한 경영지도나 세무관련 지원,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판로개척 등이,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향후 안정적 일자리로의 전환 등에서 담당 실무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엄태영 2004). 또한 최근 들어서는 탈수급, 탈자활을 위한 자활사례관리적 접근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12).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궁극적 자활에는 담당 실무자들이 어떠한 지원을 어느 정도로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활사업단 담당 실무자의 역량이나 지원정도, 자활사업 참여자들과의 관계가 정서적 자활 또는 경제적 자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선 경기지역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원오·김진구 2005)에서는 참여자들이 보유한 개인적인 특성이나 인적자본(Human Capital) 보다도 자활사업 실무자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정도가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사간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에 대한 연구(엄태영·김동기 외 2008)에서도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무자 지원에 대한 만족수준이 정서적 자활정도를 결정짓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여성 조건부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남식·신은주 외 2002)에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담당 실무자와 긍정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참여자 개인들이 자활과 관련한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밖에 포항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원상숙 2007)나 대전지역 가사간병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허미경 2007)도 실무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손능수 2005)

와 1년 이상 자활사업 참여자 5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용신·이준상 2011) 또한 자활사업 담당자가 제공한 서비스 질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만족할수록 경제적 자활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실증하고 있다.

결국 자활사업 담당자들의 지원이 적절하고 이에 만족할수록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활사업 적응을 통한 정서적·경제적 자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엄태영 2009).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은 수행과정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무자가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엄태영·주은수 2011).

2) 동료지지와 정서적·경제적 자활간의 관계

자활사업단 내의 동료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 간의 지지는 자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활사업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료로부터 받는 정서적 측면의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측면의 지지는 신뢰감이나 관심 등을 의미하고 정보적 지지는 동료로부터 얻게 되는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또는 충고로 볼 수 있다(House 1981).

이러한 동료 간의 지지는 자활사업단 운영에 있어 참여자들의 자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손능수 2005). 왜냐하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의적으로 동료를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수행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자활사업 탈락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류만희 2007). 보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단 내에 다른 동료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거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욕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남식·신은주 외 2002). 또한 가사간병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엄태영·김동기 외 2008)에서도 동료지지는 정서적 자활의 직접적 요인으로 실증된 바 있다. 이는 결국 자활사업이 공동체 형

태의 사업단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들 간의 좋은 대인관계 유지와 함께 사업단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상록·진재문(2003)의 연구에서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태도에 있어 동료관계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단 내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3) 정서적 자활의 경제적 자활에 대한 영향

자활사업의 성과평가에는 양적측면의 경제적 자활개념과 심리사회적 측면의 정서적 자활개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이형하·조원탁 2004). 왜냐하면 경제적 자활만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활에 대한 실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적 측면을 배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남연희·황의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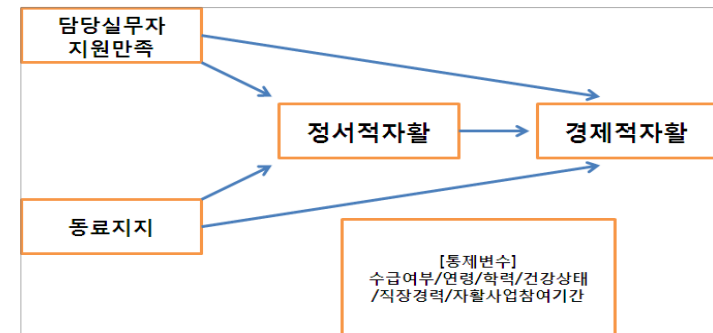
결국 최근 들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정도는 경제적 자활성과 못지않게 자활사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다(이상록 2003). 또한 정서적 자활이 경제적 자활의 선행요인으로 언급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에서 참여자의 심리적 측면이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Edward and Plotnick et. al. 2001). 그리고 이상록(2003)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자활은 경제적 자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적 측면의 변수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실제적 자활에 심리사회적 측면의 자활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안서연·구인희 외(2011)의 연구에서도 수급자의 심리, 정서적 요인으로서 주관적 수급탈피전망과 같은 변수가 탈수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서적 자활을 경제적 자활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에 이르는 경로로써 실무자지원에 대한 만족 및 동료지지의 영향과 정서적 자활정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적, 정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조사대상의 수급여부와 연령, 건강상태, 직장경력, 자활사업 참여기간 및 학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김교성 2002; 임태영 2009, 2010; 김수현 2001).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의 지역자활센터 31개소 중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⁴⁾을 실시하고 있는 22개 지역자활센터의 274명을 조사대상

4) 장애통합교육보조원이란 “특수교사 혹은 일반교사의 감독하에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교육적 협력자”로써 2003년부터 학교 및 장애아

으로 하였다. 특별히 담당 실무자에 대한 지원 만족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을 계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존재하는 기관으로만 한정시켰다.

조사 자료는 2회에 걸쳐 수집되었다. 우선 2008년 12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가 응답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2009년 3월에 각 지역자활센터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가 현재 자활사업을 탈피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⁵⁾.

3. 자료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5.0 패키지를 통해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들의 상태를 기술적 통계분석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통계적 영향력 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영향력 검증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두 종류의 회귀분석을 활용한 이유는 종속변수인 자활성과를 자활사업 탈피여부라는 이분형 변수로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력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통제변수들에 대한 변수명과 이의 측정을 위한 조작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화	신뢰도
종속 변수	자활 성과	자활근로사업을 탈피하여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한 경우를 자활성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취업한 경우를 1, 자활근로사업에 재참여함으로써 자활하지 못한 경우를 0으로 설정하였다.	-
독립 변수	실무자 지원 만족	실무자 지원만족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예정(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보여주는 지속적인 관심정도, 실제 지원정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보유정도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된다. 총 6문항으로써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무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922$
	동료 지지	동료지지 측정을 위해 김택호(2004)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써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에 대한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917$
매개 변수	정서적 자활	정서적 자활정도 측정을 위해 정원오·김진구(2005)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13문항으로써 자립요소제고 6문항과 생활태도변화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활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881$
통제 변수	수급 여부	더미(dummy)변수로 수급자는 0, 비수급자는 1로 측정하였다.	-
	건강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3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고, 이전상황에 비해 현재의 건강상태, 근로활동에 있어서의 장애정도, 평소 생활에 있어서의 우울이나 분노상태 등을 질문하였다.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함을 의미한다.	
	연령	만 나이를 측정하였다.	
	학력	정규교육 년수를 측정하였다.	
	직장 경력	자활사업 외의 직장경력을 개월 수로 측정하였다.	
참여 기간	자활사업 참여 총 기간을 개월 수로 측정하였다.		

동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에 배치되어왔다(신현옥·나성식 외 2005).

5)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독립변수, 통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측정 지점을 달리함으로써 기존 횡단연구가 지니고 있었던 인과관계규명에 있어서의 한계를 다소 극복하려 노력하였다. 즉 횡단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측정을 1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원인인지 확실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수급여부(N=274)	수급자	219(79.9)	비수급자	55(20.1)
연령대(N=274)	30세이하	8(2.9)	31~35세	24(8.8)
평균 41.98세 (S.D=5.89)	36~40세	59(21.5)	41~45세	118(43.1)
	46~50세	48(17.5)	51세이상	17(6.2)
학력(N=261)	중졸	16(6.1)	고졸	189(72.4)
	초대졸	24(9.2)	대졸	14(5.4)
	대학원이상	18(6.9)		
자활사업참여기간(N=274)	6개월이하	29(10.6)	7~12개월	48(17.5)
	13~18개월	33(12.0)	19~24개월	40(14.6)
	25~30개월	33(12.0)	31~36개월	25(9.2)
	37~42개월	6(2.2)	43개월이상	60(21.9)
직장경력(N=274)	없음	119(43.4)	1년이하	9(3.3)
	1년초과 2년이하	21(7.7)	2년초과 3년이하	18(6.6)
	3년초과 4년이하	30(10.9)	4년초과 5년이하	11(4.0)
	5년초과	66(24.1)		
특성	평균	표준편차		
건강상태(N=274)	3.19	.643		

조사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274명 중 79.9%인 219명이 수급자였고, 20.1%인 55명은 비수급자였다. 연령대는 평균 41.98세로써 41세 이상 45세 이하가 118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43.1%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고졸이 189명(72.4%), 초대졸이 24명(9.2%)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기간은 평균 26.69개월로 7개

월 이상 12개월 이하가 48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19개월 이상 24개월 이하가 40명(14.6%)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이전직장경력 은 평균 40.56개월이었고 전혀 직장경력이 없는 조사대상이 전체의 43.4%인 119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3.19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2.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

1) 자활사업 탈피

자활근로사업을 탈피하고 교육청의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취업하였거나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한 사례는 전체의 21.9%인 60명이었다. 이에 반해 자활근로사업에 재참여 함으로써 자활사업을 탈피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78.1%인 2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활사업 탈피현황

자활사업 탈피현황(N=274)	명수	%
자활사업 탈피	60	21.9
자활사업 재참여	214	78.1

2)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주요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치는 우선 실무자 지원에 대한 만족정도는 5점 만점에 3.65(S.D=.714)로 다소 좋은 쪽에 가까웠고 동료지지에 대한 인식정도는 실무자와의 관계보다 더 높은 5점 만점에 3.88(S.D=.655)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자활정도는 5점 만점에 3.62(S.D=.532)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N=274)	실무자 지원만족	동료지지	정서적 자활
평균	3.65	3.88	3.62
표준편차	.714	.655	.532

또한 독립변수인 실무자 지원만족과 동료지지, 매개변수인 정서적 자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7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상관관계

	실무자 지원만족	동료지지	정서적 자활
실무자 지원만족	1		
동료지지	.422**	1	
정서적 자활	.460**	.446**	1

**p<.01

3. 매개효과 검증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지원만족정도 및 동료지지와의 관계와 경제적 자활에 있어 정서적 자활정도가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바론과 케니(Baron and Kenny 1986)의 분석과정을 다소 변형한 홍세희(2008)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고, 두 번째 단계로서 독립변수를 연구모형 내에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1)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인 지역자활센터의 담당실무자 지원에 대한 만족과 자활사업단 동료지지가 매개변수인 정서적 자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먼저 분석모형의 정서적 자활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23.5%로 나타났다(p<.001). 독립변수인 지역자활센터 담당 실무자에 대한 지원만족정도는 정서적 자활정도에 대하여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0.331$) 자활근로사업단의 동료지지정도 또한 정서적 자활정도에 대해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216$). 즉 담당 실무자에 대한 지원만족 및 동료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활정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통제변수 중에서는 수급여부만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beta=0.115$) 수급자가 아닐수록 정서적 자활정도는 높았다.

<표 6> 정서적 자활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계수(B)	표준오차(S.E)	베타(β)		
통제변수	수급여부(ref.수급자)	.159	.079	.115	2.025*
	연령	.001	.005	.013	.232
	건강상태	.013	.050	.016	.270
	직장경력	.001	.001	.100	1.797
	자활사업참여기간	.002	.002	.060	1.021
	학력	-.004	.033	-.007	-.028
독립변수	실무자지원만족	.261	.050	.331	5.252***
	동료지지	.184	.052	.216	3.528***
Constant		1.736	.328		5.290***
R ² = 0.235 / F = 9.674***					

*p<.05, **p<.01, *** p<.001

2)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들을 고려한 상황에서 매개변수인 정서적 자활정도가 경제적 자활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고, 세부적인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매개변수인 정서적 자활정도는 경제적 자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영향력도 다른 변수에 비해 가장 강력했다. 즉 정서적 자활정도가 높을수록 자활사업을 탈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3.472). 하지만 독립변수인 담당 실무자지원만족과 동료지지정도는 실제적으로 자활사업을 탈피하는 데 통계적으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 외 통제변수 중에서는 수급자가 아닐수록(O.R=2.437), 연령이 낮을수록(O.R=.942), 학력이 높을수록(O.R=1.459) 자활사업을 탈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경제적 자활에 대한 정서적 자활의 영향요인 검증

변인		계수(B)	표준오차(S.E)	Wald	Sig	Exp(B)
통제변수	수급여부(ref.수급자)	.891	.401	4.933	.026	2.437
	연령	-.060	.030	3.859	.049	.942
	건강상태	.067	.266	.063	.802	1.069
	직장경력	.005	.003	3.563	.059	1.005
	자활사업참여기간	.008	.009	.849	.357	1.008
	학력	.378	.164	5.289	.021	1.459
독립변수	실무자지원만족	-.131	.279	.220	.639	.877
	동료지지	.088	.286	.094	.759	1.092
매개변수	정서적 자활	1.245	.384	10.520	.001	3.472
Constant		-5.183	1.910	7.361	.007	.006
-2Log우도 = 225.853 / Nagelkerke R ² = 0.203 / X ² = 35.728***(df=9)						

*** p<.001

3)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영향력 검증과 독립변수를 함께 고려한 상황에서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통계적 영향력 분석결과, 매개변수인 정서적 자활은 독립변수인 실무자지원만족 및 동료지지와 종속변수인 자활사업 탈피여부 간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2]와 같다. 우선 매개효과의 회귀계수를 계산하면, 담당실무자 지원만족 정도가 정서적 자활로 향하는 회귀계수 .261과 매개변수인 정서적 자활이 자활사업 탈피로 향하는 회귀계수 1.245의 곱이 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료지지정도와 정서적 자활, 자활사업탈피간의 회귀계수도 각각 .184와 1.245의 곱이 된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s test 중 Arojan 방법⁶⁾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 매개효과 검증

경로	매개효과 회귀계수	Test statistics	p-value
지원만족→정서적자활→경제적자활	0.325	2.718	0.0065
동료지지→정서적자활→경제적자활	0.229	2.340	0.0192

6) Baron & Kenny(1986)에 의해 활용된 Aroian 검증공식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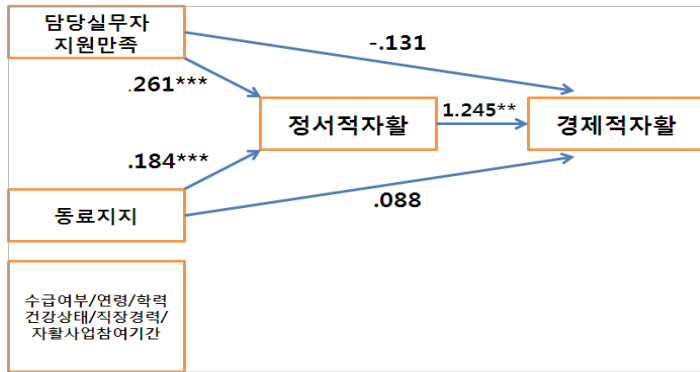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a: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b: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검증결과 우선 실무자 지원만족과 정서적 자활, 경제적 자활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매개효과 회귀계수는 0.325였으며 검정통계량은 2.718로써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지지 정도와 정서적 자활, 경제적 자활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매개효과 회귀계수는 0.229였고 검정통계량은 2.340으로써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매개변수인 정서적 자활은 독립변수인 실무자 지원만족과 동료지지, 종속변수인 경제적 자활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경제적 자활에 대해 지역자활센터 서비스 지원결과라 볼 수 있는 실무자 지원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와 동료 간의 지지정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서적 자활이 자활영향요인과 경제적 자활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효과를 지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활사업관련 실천적,

제도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식한 실무자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지지정도는 정서적 자활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적 자활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서적 자활정도는 실무자 지원에 대한 만족 및 동료지지와 경제적 자활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무자에 대한 지원만족도와 정서적 자활 및 경제적 자활간의 관계에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는 참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자활사업 참여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정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활이 가능토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가 꾸준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업무량 조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동료지지와 정서적 자활, 경제적 자활간의 관계에서 사업단의 동료들이 서로 지지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업단 내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자활사업단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무자에 대한 지원만족과 동료지지가 경제적 자활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서적 자활을 거친다는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의 다양한 전문적 개입이 곧바로 궁극적 성과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을 도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양한 자활관련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의 성과를 양적측면보다는 심리·태도적 측면으로 평가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심리·태도적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정도가 경제적 자활을 달성하기 위한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다양한 정서적 자활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지만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은 대부분 다수의 자활사업단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영리적 측면의 경영적 요소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 자활향상 프로그램은 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차원의 프로그램 운용이 어렵다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련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겠다.

다섯째, 통제변수 중에 수급여부만이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즉 수급자가 아닐수록 정서적 자활정도가 높았고, 자활사업 탈피확률도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점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성과도출에 대한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하겠다. 결국 수급자들이 현재보다 정서적 자활정도 및 경제적 자활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 외 통제변수 중 연령과 건강, 직장경력, 학력은 정서적 자활에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자활장벽요인인 높은 연령과 좋지 못한 건강, 짧은 직장경력, 낮은 학력이 정서적 자활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자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연령과 학력, 직장경력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높은 연령과 낮은 학력, 짧은 직장경력 은 경제적 자활의 장벽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서적 자활정도를 높여 놓아도 참여자들이 보유한 자활장벽요인으로 인해 실제적인 경제적 자활로는 이어지지 못할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활장벽요인이 낮은 참여자들과 상대적으로 자활장벽수준이 높아서 실제 경제적 자활로 이어지기 힘든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즉 높은 자활장벽요인을 보유한 참여자는 자활사업을 탈피하기 보다는 유용한 사회적 서비스를 자활사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자활센터의 개입결과를 실무자지원만족과 동료지지로 대변하여 측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간의 시간적 차이를 두었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여성조건부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9권 pp. 23-50.
- 권승, 2005, “비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권 탈피에 관한 연구- 수급권탈피의 결정요인과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전략 논리의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2권 pp. 179-205.
- 권용신·이준상, 2011,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서비스 질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6호 pp. 23-49.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8권 pp. 113-149.
- 김수현, 2001,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를 위한 자활지원방안 :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 김승의, 2007,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의욕 및 취업·창업관련 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인숙, 2008,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 성매매 여성 자활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22권 pp. 95-129.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남연희·황의찬, 2005, “자활사업 실무자들의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제15권 2호 pp. 115-134.
- 노대명, 2008, “자활지원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노동리뷰』, 5월호 pp. 22-38.
- 류만희, 2007,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만족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2권 pp. 51-72.

- 박경숙·박능후,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경기도청.
- 박정호, 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제41권 3호 pp. 163-184.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 , 2012, 『2012년 자활사업안내』.
- 손능수, 2005, “자활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3권 pp. 295-320.
- 신명호, 2006, “자활사업의 효과, 제대로 평가하자”, 『도시와 빈곤』, 제80호 pp. 5-30.
- 신현옥·나성식·조윤경, 2005, “장애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치원 특수교육 보조원 제도에 대한 질적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0권 4호 pp. 393-418.
- 안서연·구인회·이원진,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 근로능력자 집단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8권 1호 pp. 199-226.
- 엄태영, 2004,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 2009,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에 대한 개인 및 지역자활센터 조직요인 연구 - 통합교육보조원 자활근로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 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장벽 요인에 대한 정서적 자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2호 pp. 229-248.
- 엄태영·주은수, 20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영향요인 연구 - 서울경인지역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조원 사업참여자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2권 2호 pp. 169-187.
- 엄태영·김동기·허미경, 2008,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지지가 여성 자활근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대전지역 가사, 간병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8권 pp. 1-24.

원상숙, 2007,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상록, 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21권, pp. 105-136.

_____, 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분석 : 전북지역 자활 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제52권, pp. 241-272.

이상은·김세진, 2007, “자활공동체 수익금 및 매출액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제29권, pp. 121-144.

이예정, 2003, “조건부수급자의 개인적, 사회적 요인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형하·조원탁, 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0권, pp. 217-244.

정원오·김진구, 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8권, pp. 35-67.

허미경, 2007, “대전지역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 가사, 간병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홍세희. 2008. 『구조방정식 모형 : 초급, 중급』. 2009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4.

Baron, R. M, and David A. K.,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Dooley, D., and Prause J., 2002, “Mental Health and Welfare Transition: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in AFDC Wo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0, No. 6, pp. 787-813.

Edwards, M., E., Plotnick, R., and Klawitter M., 2001, “Do Attitud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ffect Social Economic Outcomes? The Case of Welfare Use by Young Women”,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2, No. 4, pp. 817-827.

Freeman, E. M, 1997. “Welfare Reforms and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 Setting a New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Agenda”, in Ewalt, P. L., Freeman, E. M., Kirk, A. S. and Dennis L. P., eds., *Social Policy : Reform Research and Practice*. Washington DC:NASW Press.

Hawkins, R. L, 2002, “How Low Income Single Mothers Leave Welfare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The Role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Ph. D. Diss, Brandeis University.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Hong, P.Y.P., Sheriff, V. A., and Sandra R. N., 2009, “A Bottom-Up Definition of Self-Sufficiency”, *Qualitative Social Work*, Vol. 8, No. 3, pp. 357-376.

Schmidt, L., Dohan, D., Wiley, J., and Denise Zabkiewicz, 2002, “Addiction and Welfare Dependency: Interpreting the Connection”, *Social Problems*, Vol. 49, No. 2, pp. 221-241.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n Outcome of Para Professional Self-Sufficient Program and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Self-Sufficiency

Um, Tae-young
(Kyungi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drive the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self-sufficient program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self-sufficiency between staffs, colleagues satisfaction, and economic self-sufficiency. It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staff, colleagues satisfaction, and emotional self-sufficiency on economic self-sufficiency. To collect data, 274 participants living in Seoul were surveyed on December 2008. Both multiple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adopted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and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rough the analyses, it was found that only the level of emotional self-sufficiency increased whereas those of staff and colleagues satisfaction increased.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level of emotional self-sufficiency worked as a parameter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taff, colleague satisfaction, and economic self-sufficiency.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are highlighted as follows: 1) the staff should have an opportunity for developing their professionalism, 2) community spirit should be increased in the self-sufficient program, 3) the self-sufficient program must

be evaluated through a psychological method, 4) intervention for emotional self-sufficiency should be implemented to increase economic self-sufficiency, 5) detailed manners should be made for recipients to stand on their own feet.

Keywords : self-sufficiency,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para-professional, mediating effect